

명초(明初) 유배지로서 탐라 -운남 몽골인의 타향살이 역정을 중심으로-*

T. 테무르**

국문요약

원명 교체 이후 20여년은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기존 질서가 깨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북원-명-고려의 상호 관계 및 그 변화의 과정은 많은 기복을 거치면서 매우 복잡 다변하게 이어져 간다. 13세기 후기와 14세기 전기, 탐라는 대량의 외부에서 온 이민들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원나라 왕실의 제왕이거나, 정치관료 혹은 체포된 도적떼들이었다. 홍무15년(1382), 22년(1389), 그리고 25년(1392), 탐라는 세 차례 새로운 몽골 이민들을 차례로 맞이하게 된다. 이들은 명 황제에 의해 머나먼 운남에서 유배온 자들이었다. 명나라가 몽골의 제왕과 관련자들을 유배 보내면서 탐라를 선택했다는 것은 명나라와 고려의 관계가 이미 명확해졌으며, 명왕조가 동남아 대륙에서 패권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명나라는 원을 대신해 중국을 통치하면서도, 여전히 몽골 제

* 이 논문은 제주학회, 유배문화심포의 국제학술교류를 위한 2017 제주 국제학술대회, “단절을 넘어 소통으로” - 유배문화의 역사와 문화교류 (2017.1.11~12., 제주)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한 것으로, 한국어 번역은 김원희(제주한라대학교 관광중국어과 겸임교수)가 하였다.

** 特木勒, 중국 남경대학 역사학원 교수

왕 및 그 관련자들을 탐라로 유배 보내었다는 점은 또 다른 측면에서 원명(元明) 두 시대의 연속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제어: 원, 명, 고려, 탐라, 운남 몽골인, 유배

I. 서론

13세기 후기와 14세기 전기, 탐라는 외부에서 온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원나라 왕실의 제왕이거나, 정치관료 혹은 체포된 도적떼들이었다. 『원사·탐라전(元史·耽羅傳)』에 따르면, “고려의 위성국이다. 원 세조 구빌라이가 고려를 신복(臣服)시키고서 탐라가 남송과 일본의 요충지임으로 해서 주목하였다. 지원(至元)10년에 그를 평정하고, 그 땅에 탐라국초토사(耽羅國招討司)를 세우고 진변군(鎭邊軍) 1,700인을 주둔시켰다. 초토사는 뒤에 군민도달로화적총관부(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로 하였다가 또 고쳐서 군민안무사(軍民安撫司)라 하였다. 공부(貢賦)는 해마다 모시포(毛施布) 100필을 진상하였다. 지원(至元)31년 고려왕이 상언하여, 이로부터 다시금 고려에 예속되었다”라고 하였다. 쿠빌라이가 세상을 뜨자, 고려는 탐라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를 회복하려고 줄기차게 시도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원나라는 탐라에 실제적인 관할을 유지하였으며, 탐라를 유배지와 “목마의 땅”으로 여겼다. 원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원 조정은 제왕과 관원을 수차례 탐라로 유배 보냈다. 『고려사』세가(世家) 권28에 “원나라는 도적 백여명을 탐라로 유배 보냈다”, “원나라는 도적 사십명을 탐라로 유배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임신(壬申), 원에서 위왕(魏王) 아무가를 탐라로 유배보냈다가 얼마 후 대청도(大靑島)로 옮겼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위왕 아무

가는 원나라 무종, 인종과는 이복형제 사이이다. 후에 그는 원나라로 되돌려진다. 같은 책 권36에서는 “2월 병술(丙戌), 원나라는 발란해(Boralki)대왕을 탐라로 유배보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원사·무종본기(元史·武宗本紀)』의 기록에 따라 이 발란해(Boralki)대왕은 제왕(諸王) 발란해이다. 지대(至大)2년 11월 “병오(丙午), 제왕 발란해는 개인적 원한으로 사람을 살해하였으니,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 하나 대중정야가찰로홀적(大宗正也可紮魯忽赤)이 발란해는 황족의 높은 신분이므로, 곤장으로 다스리고, 변경을 지키도록 유배 보내자고 하자 이에 따랐다.”¹⁾ 라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발란해는 변경을 수비하기 위해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탐라로 보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나라의 한족 거주지역 통치가 붕괴되기 3년 전에도 원 왕조는 여전히 추밀원(樞密院) 부사(副使) 첩목아복화(帖木兒魯花)과 수행 비서 영가(永嘉人)사람 이지강(李至剛)을 파견하여 탐라를 지키도록 하였다. 『탐라지략(耽羅志略)』 후서(後序)에서 “탐라는 중국과 만리 밖에 떨어져 있어, 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대략 황량하고 멀리 있어 생략한 것이리라. 지정(至正)25년, 추밀원연조(樞密院掾曹)로 영가 사람 이지강이 부사 첩목아복화를 따라 이 지역을 지키러 왔다. 다음해, 명을 받들어 경성으로 돌아가야 하나, 이지강은 병을 얻어 함께 가지 못하고, 송강(松江)에 머물면서,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산천의 지형, 민풍(民), 토산품 등을 기록하여 책으로 엮어서, 3권으로 만드니 제목을 『탐라지략(耽羅志略)』이라 하였다. 오카다 히데히로(岡田英弘)는 원나라가 그들을 탐라로 보낸 목적이 피난소를 준비하거나 경영하기 위한 것이라 여겼다.²⁾ 원나라 혜종(惠宗)이 탐라를 자신의 피난소로 계획을 했든 아니든, 원조정이 몽골초원으로 물러남에 따라 이 계획은 결국 실패로 마치게 된다.

원명 교체 이후 20여년은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기존 질서가

1) 『元史』 卷23.

2) 이와 관련된 자료는 오카다 히데히로의 『원 혜종과 제주도』, 『몽골제국에서 대청제국까지』를 참고하길 바란다.

깨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북원(北元)-명(明)-고려(高麗) 이 세 지역간의 상호 관계 및 그 변화의 과정은 많은 기록을 거치면서 매우 복잡 다변하게 이어져간다. 몽골초원으로 내몰린 북원 정권은 여러 차례 복귀를 위한 공격을 꾀하며, 신흥 강국 명 왕조와 패권을 다투면서, 통일 원 왕조의 회복을 꾀한다. 승패는 쉽게 갈라지지 않고 이러한 세력 싸움이 장기전으로 이르게 되자, 이런 상황을 맞이한 고려왕조는 긴밀히 “북원명남(元北明南)”의 대치 상태를 관망하는 동시에,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 조정을 취한다. 북원과 명의 관계로 변화로 인한 제약과 영향으로, 북원과 고려, 명과 고려의 관계 역시 순탄치 못하게 진행되고, “원북명남 2년간의 대치” 상황은 고려에 있어서도 매우 험난한 시기였다. 하지만, 고려와 비교했을 때 탐라의 상황은 더욱 녹록치 않았다.

1356년 고려의 공민왕이 기황후 일가의 세력을 제거하려 하자, 원나라와 고려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걷게 된다. 탐라는 이 두 적대적인 강국 틈에 놓이기 시작한다. 고려는 탐라에 대한 통제권을 쟁탈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정치적 군사적 행동을 실행에 옮기게 되지만, 원나라 목자(牧子)의 통제 하에 있던 탐라는 고려보다는 원나라에 귀속되기를 원했으며, 쌍방은 여러 차례 무혈 충돌까지 발행하기에 이른다. 1368년 원나라 조정이 북으로 옮겨짐에 따라, 탐라 또한 원조정과의 연락선이 끊어지게 된다. 하지만 그 이후 20년 동안, 탐라의 자리매김과 운명은 당연히 북원-명-고려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명나라 홍무(洪武)29년(1386) 탐라의 고려에 대한 예속 관계는 마침내 공고히 해지고, 홍무15년(1382), 22년(1389), 그리고 25년(1392), 탐라는 세 차례 새로운 몽골 이민들을 차례로 맞이하게 된다. 이들은 명 황제에 의해 머나먼 운남에서 유배 온 자들이었다. 명나라가 몽골의 제왕과 관련자들을 유배 보내면서 탐라를 선택했다는 것은 명나라와 고려의 관계가 이미 명확해졌으며, 명왕조가 동남아 대륙에서 패권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일본학자 오오바 쇼이치(大葉昇一)는 “탐라가 오래된 독립국으로 백제와 당, 일본과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9세기 초부터는 신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후에는 고려에 조공을 바쳤다. 12세기 초, 고려는 탐라에 군(郡)을 설치하고, 후에는 현(縣)으로 변경하였으며, 13세기 이후에는 제주라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1266년 성주(星主)는 고려를 경유하여 원나라에 도착한다. 그 다음해 원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원 조정은 탐라를 고려와 다른 독립적 존재로 보기에 이른다. 삼별초의 난 이후, 탐라는 원 왕조의 통치를 받기 시작한다. 원 말명초에 이르러 고려는 탐라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이로써 성주는 그 자치권을 상실하게 된다. 원대는 탐라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³⁾라고 했다.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다. 본 저자는 원나라가 1368년 한족 지역에서 물러나기까지 탐라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잃은 적이 없다고 본다.

앞서 인용한 『탐라지략』 후서의 기록에 따르면, 지정(至正)25년(1365) 원나라는 추밀원 부사 첩목이복화와 추밀원 비서 이지강을 파견해 탐라를 “지키라”, “그 백성들을 평정하라”라고 한 것이 명확한 증거라 할 것이다. 고려가 탐라에 대한 명분상의 귀속 관계에만 만족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려의 탐라에 대한 실질적 통제는 원 조정이 한족 거주지역에서 완전히 물러나기 전까지는 그 목적을 실현할 수가 없었으며, 명초 10여년 동안도 실현될 수 없었다. 따라서 “원대는 탐라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탐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는 명나라 초기 20년이라고 말하는 것 더 나을 것이라 여겨진다. 북원과 명나라에 비해, 고려는 많은 시기 세력이 약한 존재였다. 하지만 이 격변의 시기에 고려는 아무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명나라가 북원을 방어하기 위해서, 고려에 다량의 마필을 요구하였고, 명나라의 압박에 고려는 이 요구로 탐라를 압박했으며, 마침내 탐라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3) 오오바 쇼이치, 1999, 「원·명초의 탐라(제주도)」, 『昭和女子大學文化史研究』 제3집.

탐라의 역사는 동아시아사, 특히 동아시아 해양역사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상관된 연구는 일찍이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잘 알다시피,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1999년 일본학자가 발표한 문장 외에도, 일찍이 1926년, 일본학자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弘)가 『동양학보(東洋學報)』에 발표한 <쿠빌라이와 탐라도>는 초창기 중요한 성과물이라고 할 것이다. 오카다 히데히로 또한 1958년 <원 순제와 탐라도>를 발표하였다. 최근 한국의 이개석 선생이 원나라와 고구려의 관계에 입각하여 탐라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다. 성모성심회의 헨리 세뤼 신부(Henry Serruys, CICM)는 명대 몽골사와 명과 몽골 관계사 연구의 거장이다. 그가 1957년 완성한 『홍무제 시기 중국 경내의 몽골인』 제9장에서는 운남의 몽골인에 한 절을 할애하고 있다. 그는 저서에서 운남에 주둔하고 있던 몽골의 제왕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1382년 운남이 명나라에 의해 점령당한 이후 몽골인들이 고려와 탐라로 유배된 바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있다.⁴⁾ 하지만 세뤼가 연구한 주제와 중심은 명나라 시기 경내에 머물고 있던 몽골인에 대한 것이었기에, 명 이외의 지역에 유배된 몽골인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탐라와 명초 몽골이민을 수용 사실을 14세기 후반 동아시아 전체의 다극화 국면 변화와 더불어 연구하고자 한다. 다만 이는 초보적인 연구 성과로 만일 오류가 있다면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바란다. 명나라는 원을 대신해 중국을 통치하면서도, 여전히 몽골 제왕 및 그 관련자들을 탐라로 유배 보내었다는 점은 또 다른 측면에서 원명(元明) 두 조대의 연속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4) Henry Serruys, The Mongols in China during the Hung-Wu Period(1368-1398), Bruxelles : Institut belge des hautes études chinoises, 1980. p.210.

II. 본론

지정(至正)28년(1368), 즉 명 홍무5년 7월, 원나라 혜종(惠宗) 토곤테무르(元順帝, Toqon-Temür)가 원의 상도(上都)로 도망을 가게 된다. 멀리 운남의 양왕(梁王)은 여전히 “해마다 만리장성 너머 원 황제가 계신 곳에까지 사신을 보내 신하로서의 본분을 예나 다름 없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였다. 홍무3년 4월, 혜종 토곤테무르가 세상을 떠나고 소종(昭宗) 아유시리다가 왕위를 계승하고 다음해 연호를 “선광(宣光)”으로 개원한다. 소종은 정치의 중심을 막북(漠北)으로 옮긴다. 홍무5년(북원 선광2년, 1372) 정월, 명나라는 삼로대군(三路大軍)을 북진하도록 하여, 북원 정권을 멸망시키고 전국(傳國)의 옥쇄를 회수하려 시도한다. 주원장은 막북으로 출병하는 동시에, 한림대제 왕의(翰林待制 王禕)를 잡혀있던 양왕의 사신 소성(蘇成)과 함께 운남으로 가서 항복을 권하는 조서를 내린다. 왕의는 운남에 도착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 죽은 그 해 5월, 명의 군대는 막북에서 치참한 패배를 하게 된다. 서달(徐達)이 이끄는 중로대군(中路大軍)과 이문충(李文忠)이 이끄는 동로군(東路軍)은 막북 초원 깊숙한 곳으로 유인되면서 몽골군의 포위망에 걸려들어, 많은 명장수들이 사망하게 되고 군대는 심각한 사상자를 내게 된다. “선광 2년 방어전의 승리는 명대의 몽고사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소종(昭宗)과 확곽첩목아(擴廓帖木兒), 만자(蠻子), 합랄장(哈剌章) 등은 주원장의 북벌전쟁에서의 백전백승 신화를 깨뜨리고, 가는 곳마다 거칠 것이 없었던 군대에 좌절을 맞이하게 하면서, 명나라의 군대의 전투력을 크게 상실시킨다. 이 전투로 북원의 군대는 수도를 방위할 수 있었으며 자심감도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 북원 정권은 이 전투의 승리를 맞이하고 나서야 겨우 안정을 찾아갈 수 있었다” 북원의 소종 아유시리다는 사신 토크토아부카를 막북에서 ‘서번(西蕃)’을 돌아 운남으로 가서 양식을 징수토록 파견한다. 명조정은 운남 양왕(梁王)과 북원(北元)의 “연합하여 명에 대적하려

모의한다”⁵⁾라고 여긴다.

명의 군대가 홍무5년의 전투에서 패배하지만, 명왕조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원 정권 및 그 외부세력간의 연계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긴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홍무8년, 양왕은 사신 철지원(鐵知院) 등 이십여명을 막북으로 파견하다가 명나라 군대에 의해 나포된다. 철지원과 오운(吳雲)의 경험에서 나타나듯, 굴기하던 명왕조는 이미 운남과 북원 전반에 뻗쳐 있었고 운남과 북원의 긴밀했던 관계망은 점차 약해져가고 있었다.

고려측에게는, 홍무6년(선광3년), 북원의 소종(昭宗)이 사신을 파견하여, 공민왕에게 서신으로 이르길 “근자에 병란이 일어나 북으로 옮겨왔다. 이제 코코 테무르가 승상이 되어 중흥하려 하고 있다. 왕 또한 세조의 현손이니, 천하를 다시 바로잡는 데 조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3년 후에, 소종이 계속해서 사신을 파견하여 주장하기를, 공민왕이 “생각을 고쳐서, 상국의 명령에 응하여, 군사를 가다듬고 말을 먹여서, 함께 앞뒤로 호응하여, 적을 견제하는 형세를 이루어, 우리 국가 중흥의 대업을 돕게”할 것을 희망했다. 혹시나 명 조정에 발각될까 두려워 공민왕은 야밤에 북원의 사조를 접견한다. 고려는 일찌감치 홍무3년부터 명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신우(辛偶)가 즉위한 후에는 선광(宣光) 연호로 바꿔 사용했으며, 심지어 “중양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옥사(獄事)의 처결은 모두 『지정조격(至正條格)』에 의거하게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기까지 한다.

홍무5년 7월, 고려의 공민왕은 명나라가 막북에서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틈타, 탐라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으려했지만, 주원장에 의해 저지당한다. “고려왕이 그 나라 상서(尙書) 오수남(吳季南)과 장

5) 『蒙古民族通史』 第3卷(曹永年 撰), 內蒙古大學出版社, 2002年, 7쪽. 학자들은 民國時期 이래 雲南에서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많은 사원의 碑刻, 塔銘, 그리고 墓志에서 “大元宣光” 연호가 발견되는 것에 주의하였다. 雲南行省의 최고권력자 梁王이 北元의 연호를 사용한다는 증거들에 주목한 것이다. 方齡貴, <雲南現存北元宣光紀年文獻考述>, 『西北民族研究』 1985年 第2期.

자온(張子溫) 등을 파견하여 표문을 올리고 말과 토산물을 바쳤다. 표문에 이르기를 ‘탐라국(耽羅國)은 그 험준하고 먼 점을 믿고 조공을 바치지 않고 있으며, 많은 몽고인이 그 나라에 살고 있으니 마땅히 옮겨야 하겠으며, 난수산(蘭秀山)에서 도망쳐 와서 무리를 이룬 자들도 또한 도둑질을 할까 우려되니 군사를 내어 그들을 토벌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황상이 이에 왕전에게 새서(璽書)를 하사하여 말하기를 ‘탐라는 바다의 동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고려와 가까워, 짐이 즉위한 처음에 사신을 보냈을 때에는 다만 왕국까지만 통하게 하고 아직 탐라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또한 탐라는 이미 고려에 속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죽이고 살리는 것은 왕이 이미 오로지하고 있으니, (탐라에) 비록 호인의 부락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고려로부터 명을 듣고 있으며, 또한 별도로 서로 피어내는 나라가 없으니 어찌 의심하고 꺼리는 것이 이렇게 심한가. 작은 틈으로 인하여 큰 화를 얻어낼 수 있으니, 지혜로운 선비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왕은 마땅히 작은 생선을 굶는 도리를 깊이 생각하여 살펴 행하여, 왕의 경토를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탐라 또한 그 덕을 누릴 수 있게 하라.’라고 하였다. 신흥 왕조인 명 왕조는 표면상으로 한족의 색채를 가지면서, “오랑캐를 몰아낸다”라는 기치 아래에 반원(反元)의 힘을 동원하여, 장차 원나라 통치 집단을 한족 거주 지역에서 몰아내고자 했다. 고려의 공민왕은 이러한 명나라의 명분을 빌어서 탐라에서 몽골인들을 몰아내기를 희망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탐라를 통제하려는 목적을 실현하고자 했다. 결과는 희망대로 되지 않았다. 명왕조는 명분상으로는 “탐라가 이미 고려에 복속되었다”라고 인정하였지만, 고려 측에서 실제로 실효성 있는 관할을 하고자 한다면 명나라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했다.

북원과의 전투에서 실패한 명 왕조는 단기간 내에 북원정권을 물리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에 동북, 서북 그리고 서남 지역에서부터 체계적인 전투를 시작한다. 운남은 바로 이 시기 명에 의해 정복된다. 홍무14년 명나라는 사천에서 운남으로 대군을 파견하고, 이 해 12월 명군(明軍)은 “백석강(白石江) 전투”에서

양왕(梁王)의 원군(元軍)을 대패시킨다. 최전선의 장수는 명군에 나포되고, 이는 양왕의 자신감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양왕 본인은 물론, 아내와 소속 왕부 관원들이 모두 자살로 순국한다. 홍무15년(1382), 운남행성(雲南行省)의 모든 지역은 명나라 군대에 의해 지배당하게 된다.

홍무15년 3월, 운남의 왕실 자제와 가족들은 남경으로 압송된다. “경오정남(庚午征南) 장군 영천후(潁川侯), 전우덕(傅友德) 등이 옛 원나라 위순왕(威順王)의 아들인 바이바이와 양왕(梁王) 바자르 오미르 가족(家屬) 318명을 붙잡아서 경사(京師)로 보내자, 조서를 내려 초(鈔)450정(錠)을 상을 내리셨다”⁶⁾ 이 사료는 두 가지 점에서 가치가 있다. 먼저 남경에 도착한 인원수로 위순왕의 아들 바이바이와 량왕 바자르 오미르 두 가족 합계가 318명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은 먼저 남경으로 보내어지지만, 후에는 탐라로 유배된다는 점이다. 『명태조실록(明太祖實錄)』 홍무15년(1382)4월 갑신조기(甲申條記)에 “옛 원나라 양왕 바자르 오미르와 위순왕의 아들 바이바이 등 가족을 탐라에 안치하니, 바이바이에게는 의복 한 벌과 말 10필을 하사한다.”라고 하였다. 홍무15년(1382)4월 이 유배 후에, 적어도 두 차례 몽골인들이 탐라로 유배되어 온다. 『명태조실록』 홍무22년(1389)4월 갑인조기(甲寅條記)에 “조서를 내리니, 옛 원나라 제왕 가운데 귀순한 자를 탐라에 거처하도록 하였으며, 또 중사(中使)를 파견해 그 나라를 왕유(往諭)할 터이니, 그들에게 머물 여사(廬舍)를 지어주고 그곳에 머물게 하라”라고 하였다. “여사를 지어준 곳”이 지금 제주도의 어느 곳인지, 고증이 필요하다. 홍무 연간에 북에서부터 명으로 투항한 몽골의 제왕들은 많았다. 여기서 옛 원나라 제왕은 운남 양왕과 관련있는 것이 아닌지? 이 역시 확정지을 수 없다. 3년 후 홍무 25년(1392)정월, 주원장은 다시금 “명하여, 옛 원나라 양왕의 손자 아얀테무르(Ayan-Temur)를 고려에 보내게 하고 초(鈔) 50정을 하사하여 여비로 삼게 하였다. 또한 고려에 명하여

6) 『明太祖實錄』 卷143.

그를 탐라국으로 보내 그 친족들과 같이 하게 하도록 하였다.”⁷⁾라고 하였다. 이 아안테무르는 양왕 바자르 오미르의 손자이다. 명태조 주원장의 의도는 명확하다. 양왕의 후예를 외딴 섬에 가두어 둠으로 그들이 북원과 어떠한 연락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로써 운남에 있는 모든 양왕의 가족과 그 밖의 몽골인들이 모두 탐라로 유배되었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다. 세취 신부가 말하길 “1382년 운남이 명왕조에 의해 정복되고 제왕들이 포로로 잡히고 고려와 탐라로 유배되어 갔다. 명왕조의 통제에 들어가고 제왕들이 체포되어 간 후에도 여전히 많은 수의 몽골인들이 운남에 남아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⁸⁾라고 말하였다.

명나라의 군대는 운남과 서북지역에서 연이은 승전을 하면서, 전투력을 불살랐고, 북원을 공격하기 위한 지속적인 준비를 한다. 이러한 불굴의 전투 의지는 고려와 탐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명왕조의 고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거대한 압력을 가한다. 주원장이 요동(遼東)의 수장(守將)에게 내린 칙유(敕諭)에 중국 역사에서 조선반도 왕조에 대해 벌인 전쟁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데, 의심할 바 없는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고려 측에서는 분명 무거운 압력으로 느꼈을 것이다. 명나라가 줄곧 고려에 대해 탐라의 마필을 요구하면서 “고려왕이 말 값을 받지 않겠다고 표문을 올려 청하더라도” 주원장은 “지금 저들이 말 값을 감히 받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그들의 본심이겠는가. 대개 위세를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니, 위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꺾박하는 것은 짐이 할 바가 아니다. 너는 짐의 뜻을 자문에 써 보내어, 고려의 국왕에게 알리고, 이어 연안후 당승종(延安侯 唐勝宗)에게 유시하길 고려의 말을 도착하기를 기다려 쓸 만한 말을 가려

7) 『明太祖實錄』 卷215, 洪武25年 春正月 丙申.

8) Henry Serruys, *The Mongols in China during the Hung-Wu Period(1368-1398)*, Bruxelles : Institut belge des hautes études chinoises, 1980, p.210.

그 값을 쳐주라”라고 명한다. 실질적으로 고려에 강한 압박과 퇴로가 없음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강력한 압박은 고려에게는 마침내 탐라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홍무19년(1386)병인7月, 고려는 명나라의 요구로 “전의부정 이행(典醫副正 李行), 대호군 진여의(大護軍 陳汝義)를 탐라로 보내었다. 이때 조정에서 탐라의 말을 해마다 취하여 천자의 나라에 공물로 바치라 하였다. 허나 이 섬이 누차 반란을 일으켰던 까닭에 공사(貢使)가 통행하지 못하자, 황제가 가로막는 행위에 엄히 처벌할 것을 명하니, 온 나라가 놀라게 된다. 이행이 명을 받들어 회유하러 가서, 풍속이 몹시 다른 탐라를 안정시키고, 이에 성주 고신결(星主 高臣傑)의 아들 봉례(鳳禮)를 데리고 돌아왔다. 탐라가 이때부터 귀순하여, 사람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기량에 복종한다”⁹⁾라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탐라가 진정으로 고려에 귀순한 것은 홍무19년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는 비록 명나라의 압박에서 비롯되었지만, 탐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군관을 탐라로 보내고, 강제로 성주의 아들도 데려온다. 이런 방식으로 고려는 공마(貢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또 탐라를 항복시키고, 탐라를 통치권 아래에 두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주원장도 결코 예상치 못한 것일 것이다.

9) 『騎牛先生文集』 卷之二 『遺事撫錄』.

참고문헌

- 冈田英弘 『元惠宗与济州岛』; 『从蒙古帝国到大清帝国』.
- 大叶昇一, 1999, 「元·明初の耽罗(济州岛)」, 『昭和女子大学文化史研究』, 第3辑.
- 『明太祖实录』 卷71.
- 曹永年 撰, 2002, 『蒙古民族通史』 第三卷, 内蒙古大学出版社.
- 『明太祖实录』 卷101.
- 『明太祖实录』 卷140.
- 『明太祖实录』 卷143.
- 『明太祖实录』 卷203.
- 『明太祖实录』 卷215.
- 『骑牛先生文集』 卷之二 『遗事摭录』.
- 『元史』 卷23.
- Henry Serruys, 1980, *The Mongols in China during the Hung-Wu Period(1368-1398)*, Bruxelles: Institutbelge des hautesétudes chinoises.

作为流配地的耽罗：明初20年的位置和命运

— 以云南蒙古人流寓轨迹为中心 —

特木勒

（南京大学历史学院）

十三世纪后期和十四世纪前期的耽罗接受了大量外来移民。他们有的是元朝皇室的诸王、政府官员或者被捕获的盗贼。直到元朝在汉地的统治行将崩溃的三年前，元朝仍然派遣枢密院副使帖木儿卜花和秘书永嘉人李至刚“往守”耽罗。《耽罗志略》后序说“耽罗距中国万里，而不载于史，盖以荒远略之也。至正二十五年，枢密院掾曹永嘉李至刚，从副使帖木儿卜花公往守其地。明年，奉诏还京师，至刚以疾不得俱，乃留松江，因记所歷山川形势、民风土产，编而成集，厘为三卷，题曰《耽罗志略》”。冈田英弘认为元朝派遣他们到耽罗的目的是准备或者经营避难所。无论元惠宗是否真的计划将耽罗作为自己日后的避难所，随着元廷败退蒙古草原，这个计划终究变成泡影。

元明鼎革以后的20余年是东亚和东北亚旧秩序被打破，新秩序形成的过渡阶段。北元—明朝—高丽三方之间的互动关系及其演进过程跌宕起伏，经历了非常复杂的变迁。败退到蒙古草原的北元政权曾经多次展开反攻，与新兴的明朝争夺霸权，试图恢复大元朝的统一。期间互有胜负，势力消长起伏。面对复杂而多变的局势，高丽王朝除了密切关注“元北明南”相互对峙和斗争的动态，曾经在对外政策方面多次进行调整。受到北元—明朝关系的制约和影响，北元—高丽和明朝—高丽关系的演进崎岖波折，“元北明南两立年”对于高丽是非常艰难的时期。但是，与高丽相比较，耽罗的处境似乎更为艰难。

1356年高丽恭愍王铲除奇皇后家族势力，元朝与高丽从此交恶，耽罗也开始面对两个敌对的强邻。高丽为了夺回对耽罗的控制权而多次采取政治和军事行动，而在元朝牧子控制下的耽罗在归属方面另有所求，他

们要求隶属元朝。双方甚至多次发生流血冲突。1368年元廷北迁。耽罗应该也就失去了与元朝的联系。但是在之后20年当中，影响耽罗位置和命运的主要应该还是北元—明朝—高丽三角关系。到明朝洪武十九年（1386），耽罗对高丽的隶属关系才最终稳定下来。在洪武十五年（1382）、二十二年（1389）和二十五年（1392）间耽罗先后迎来至少三批蒙古新移民。他们是被明朝皇帝从遥远的云南发配而来的。明朝之所以选择耽罗来流放蒙古诸王及其部属，实际上说明明朝—高丽关系的最终确定和明朝在东亚大陆霸权的确立。

需要说明的是，日本学者大叶昇一说：“元末明初，高丽在耽罗恢复其支配权，星主遂失去其自治权。元代是决定耽罗命运的重要时期。”笔者认为，元朝直到1368年退出汉地都没有失去对耽罗的实际控制，前引贝琼《〈耽罗纪略〉后序》的记载，至正二十五年（1365）元朝派遣枢密院副使帖木儿卜花和枢密院秘书李至刚“往守”耽罗，“镇抚其民”，这就是明显的证据。高丽对于耽罗，当然不会满足于名义上的归属关系，但是高丽对耽罗达到实际控制的目标直到元朝退出汉地仍未能实现，甚至明初十几年中都还没能实现。所以我们认为，与其说“元代是决定耽罗命运的重要时期”，莫如说真正决定耽罗命运的更重要时期是明初的20年。本文试将耽罗及其在明初接受蒙古移民之事置于十四世纪后半页整个东亚多极格局的演进中加以考察，只是一个初步的尝试，错漏之处，祈请方家指正。

至正二十八年（1368），也就是明洪武五年七月元惠宗妥欢帖木儿（元顺帝，Toqon-Temür）逃往元上都。远在云南的梁王仍然“岁遣使自塞外达元帝行在，执臣节如故。”洪武三年四月，惠宗妥欢帖木儿去世，昭宗爱犹识理达腊继位。翌年改元“宣光”。昭宗将政治中心迁往漠北。洪武五年春正月（北元宣光二年，1372）春正月，明朝派遣三路大军北进，试图一举消灭北元政权并夺回传国玉玺。朱元璋在出兵漠北的同时，遣翰林待制王祚偕苏成，赍诏谕云南，诏曰：

朕惟天生斯民，必立之君以抚治之。曩者元君失政，海内鼎沸，疆宇

瓜分，其盜据境土，擅生杀者不可胜数，生民涂炭，十有七年。朕起布衣，提义师，开基江左，命将四征，西平陈友谅，东缚张士诚，南下闽粤，北清幽燕，奠安华夏，复我中国旧疆，为臣民推戴，即皇帝位，定有天下之号曰大明，建元洪武，是用遣使外夷，播告朕意，使之所至，蛮夷酋长莫不称臣入贡，惟尔梁王把都、平章段光、都元帅段胜守镇云南，亦尝遣人告谕，不意蜀戴寿等凭恃险隘，阂绝中道，致使朕意不达尔土，去年遂兴问罪之师，分命大将，率马步舟师，水陆并进，直抵重庆，明升面缚街壁出降，继平成都，生擒戴寿，即其郡邑设置官守。西土既宁，复遣使往谕尔等，尚恐未达。今因北平送至苏成，称为尔等北使之入，故复遣使往谕，朕虽不德，不及我中国古先哲王，使四夷怀服，然不可不使天下周知，故兹诏谕尔其悉之。

王“祗至云南，梁王久留不遣，卒遇害。祗字子充，婺之义乌人，幼嗜学，师同郡黄潜，博通群书，尝游元都，知祗者多荐其文行，不报而归。到这一年五月，明朝军队在漠北遭遇惨败。徐达率领的中路大军和李文忠率领的东路军被牵诱至漠北草原深处，落入包围圈，多名高级将领阵亡，死伤惨重。“宣光二年保卫战的胜利，在明代蒙古史上是一件大事。昭宗与扩廓帖木儿、蛮子、哈刺章等，挫败了朱元璋自北伐以来几乎每战必胜，所向披靡的兵锋，歼灭了明军的有生力量，保卫了首都，并且大大增强了自信心。北元政权，只是在这一仗获胜以后，才初步稳定下来。”北元昭宗爱犹识理达腊遣使臣脱脱，自漠北绕道‘西蕃’，征粮云南。明朝方面认为这是云南的梁王与北元“谋连兵拒我”。

明军在洪武五年一战中遭遇挫败，但是明朝仍然是新兴的强大的力量，他们对北元自身及其对外联络保持持久的密切关注。洪武八年，梁王派遣使臣铁知院等二十余往漠北，却被明军截获。《明太祖实录》洪武八年九月戊辰条记：

上命湖广行省参政吴云使云南，谓之曰：“今天下混一，四夷宾服，独云南一隅未奉正朔，杀我使臣。朕欲以兵取之，恐劳师费财，以伤远人，卿能为朕作陆贾乎？”云对曰：“天命所在，谁能违之？第彼恃险远，故阻声教，臣奉陛下威德，往告以大义，晓以祸福，彼必附顺，若

冥頑不从，兴师未晚。”遂遣云行。时元梁王使其臣铁知院等二十余人使漠北，为大军所获，送京师。上释之，命与云偕行。至云南之沙糖口，铁知院等谋曰：“吾属奉使不达，中道被执而还，罪必不免，于是共说诱云，令胡服辫髮，诈为元使，又逼令改易制书，共给梁王。云不从，以死自誓，铁知院等知不可夺，遂杀之。梁王后知其事，遣人收云骨，送属给孤寺殡之。云，常州宜兴人，仕元为端本堂司经，改翰林待制，洪武元年王师克元都，以故官送赴京，授弘文馆校书郎，历渭南县丞、刑部郎中、磨勘、司令，刑部尚书，出为湖广参政。坐事被逮，上素重其才，至则释之，遂有是命。

铁知院和吴云的经历证明，崛起的明朝已经横亘在云南与北元之间，曾经紧密的声息联络正在减弱。

高丽方面，洪武六年（宣光三年），北元昭宗派遣使臣，致书恭愍王说“顷因兵乱，播迁于北，近以扩廓帖木儿为丞相，几于中兴。王亦世祖之孙也，宜助力，复正天下。”三年以后，昭宗继续派使臣游说，希望恭愍王“改图以副上命，厉兵秣马，共成犄角。庸赞我国家中兴之业。”或许是恐怕惊动明朝，恭愍王夜间接见北元使者。高丽早在洪武三年开始用明朝年号。辛偶继位以后改用宣光年号，甚至出台规定“中外决狱一遵《至正条格》。”

洪武五年七月，高丽恭愍王试图把握明朝在漠北战败的时机，夺取对耽罗的控制权，但是被朱元璋强硬制止。“高丽王遣其尚书吴季南于温奉表，贡马及方物，言‘耽罗国恃其险远，不奉朝贡，及多有蒙古人留居其国，宜徙之。兰秀山逋逃所聚，恐为寇患，乞发兵讨之。’上赐颛玺书曰：‘耽罗居海之东，密迩高丽。朕即位之初，遣使止通王国，未达耽罗，且耽罗已属高丽，其中生杀王已专之，虽有胡人部落，已听命于高丽，又别无相诱之国，何疑忌之深也！因小隙而构成大祸，智士之所慎也，王宜熟虑烹鲜之道，不但靖安王之境土，而耽罗亦蒙其德矣。’”新兴的明朝表面上具有汉族色彩，他们在“驱逐鞑虏”的旗帜下动员反元力量，将元朝统治集团逐出汉地。高丽恭愍王似乎希望借助这个旗帜，在这个名义下把蒙古人赶出耽罗，进而实现控制耽罗的目标。结果事与愿

违。明朝方面名义上承认“耽罗已属高丽”，但是高丽方面要实现实际的有效管辖，却得不到明朝的同意。

遭遇惨败的明朝认识到北元政权并非短期内可以打败，于是开始在东北、西北和西南方向系统经营。云南就是这个时候被明朝征服的。洪武十四年明朝派大军从四川进军云南，这一年十二月，“征南将军颖川侯傅友德等师至曲靖，击败梁王将達里麻兵于白石江。先是，梁王把匝剌瓦尔密闻王师下普定，遣司徒平章达里麻将精兵十余万屯曲靖，以备我师。右副将军西平侯沐英谓友德曰：‘彼不意我师深入，若倍道疾趋，出其不意，破之必矣。上所谓出奇制胜者此也。’友德是之，遂进师，未至曲靖数里，忽大雾四塞，冲雾而行，阻水而止，则已临白石江矣。顷之雾齐，达里麻见之大惊，仓黄失措，友德即欲济师，英曰：‘我军远来，形势既露，固利速战，然亟济恐为所扼，’乃整师临流，势若欲济，达里麻果拥精锐扼水上，英于是别遣数千人，从下流潜渡，出其后，鸣金鼓，树旗帜，达里麻见之，急撤众以御，众乱，英乃拔剑督师济江，达里麻却数里而陈，我师毕济，既陈，友德麾兵进战，矢石齐发，呼声动天地，战数合，英纵铁骑捣其中坚。敌众披靡，遂大败，生擒达里麻，俘其众万计。友德悉抚而纵之，使各归其业，夷人见归者皆喜慰，而军声益振，遂平曲靖，留兵镇其地，友德自率众数万捣乌撒，分遣左副将军蓝玉、右副将军沐英率师趋云南。”前线的主帅被明军擒获，对于梁王的信心是重大的打击。“梁王把匝剌瓦尔密闻达里麻兵败被擒，度不能支，乃与其左丞达的、参政金驴遁入罗佐山。”明军不断南下，不断犹消息传来。“梁王把匝剌瓦尔密既入罗佐山，其右丞驴儿自曲靖驰归，谓曰：‘事急矣，将奈何？’于是，把匝剌瓦尔密携妻孥与左丞达的及驴儿俱入普宁州忽纳砦，焚其龙衣，驱妻子赴滇池死，把匝剌瓦尔密遂与达的、驴儿夜入草舍中，俱自缢死。”“白石江之战”是明朝征服云南的关键战役，明朝的胜利直接决定了对云南的占领。梁王本人和妻子、所属王府官员都自杀殉国。到洪武十五年（1382），云南行省全境被明朝军队占领。

洪武十五年三月，云南诸王子弟和家属被送往南京。“庚午征南将军颖川侯傅友德等以故元威顺王之子伯伯及梁王把匝剌瓦尔密家属三百一十

八人至京师，诏赐钞四百五十錠。”这条材料有两点价值：首先是记录了到达南京的人数，威顺王之子伯伯及梁王把匝剌瓦尔密两个家族共计318人。其次，这批人是先被送往南京，然后才被发配至耽罗的。《明太祖实录》洪武十五年（1382）夏四月甲申条记：“迁故元梁王把匝剌瓦尔密及威顺王子伯伯等家属居耽罗，赐伯伯衣一袭、马十四。”

为什么朱元璋要赐衣服和马匹给伯伯？伯伯并非被发配的人物。洪武七年（1374），伯伯曾经奉朱元璋之命去云南，对梁王把匝剌瓦尔密进行劝降。威顺王子伯伯与梁王是亲戚。但是显然劝降没有成功。护送至耽罗的伯伯子孙后来在高丽使臣护送下，又回到了南京。洪武二十三年七月甲辰，“高丽遣其臣金乙祥送故元伯伯太子男六十奴、火者卜尼到京。时六十奴等往耽罗，先有命征之，至是送至，诏赐六十奴银五十两，钞五十錠，卜尼银二十两，钞十錠，衣各一袭。其廉从及高丽使者赏有差。”这里的六十奴是就是“威顺王子”，也就是“伯伯太子”之子。

洪武十五年（1382）四月这次流配之后，至少还有两批蒙古人被流配至耽罗。《明太祖实录》洪武二十二年（1389）夏四月甲寅条记：“诏故元诸王未降者俾居耽罗国，且遣中使往谕其国，为造庐舍处之。”所“造庐舍”在今济州岛的什么方位，还有待考订。洪武年间，从北边投降明朝的蒙古诸王很多，这里的“故元诸王”是否与云南梁王有关？也还无法确定。三年以后的洪武二十五年（1392）春正月，朱元璋再次“命送故元梁王孙爱颜帖木儿于高丽，赐钞五十錠为道里费，且命高丽送至耽罗国，依其亲戚。”这个爱颜帖木儿（Ayan-Temür?）应该是梁王把匝剌瓦尔密之孙。明太祖朱元璋的意图很明显，将梁王后裔困在孤岛上，防止他们与北元发生任何联系。同时我们应该注意到的是，我们还无法就此认为在云南的所有梁王的家属和其他蒙古人都被发配到耽罗了。司律思神父说：“1382年云南被明朝征服，诸王被掳获并开发配到高丽和耽罗岛。毫无疑问，在进入明朝控制，他们的诸王被带走以后，仍然有很多蒙古人留在云南了。”

明朝军队在云南和西北不断取得，厉兵秣马，为打击北元做持续的准备。这种积极进取扩张战略也影响了高丽与耽罗的关系。明朝对高丽采

取强硬的政策，施加巨大的压力。在这种强大的压力也使得高丽终于在控制耽罗方面取得突破。洪武十九年（1386）丙寅秋七月。高丽王朝迫于来自明朝的压力，“遣典医副正李行、大护军陈汝义往于耽罗。时朝廷岁取耽罗马，贡于天朝。岛夷屡叛，贡使不通，诏谕截严，举国震惶。行奉旨往谕，镇服殊俗，乃率星主高信杰子凤礼以还，耽罗归顺始此，人服其经济之器。”看来耽罗真正归顺高丽是从洪武十九年开始的。高丽虽然是迫于明朝的压力而派使臣和军官进入耽罗，强行带回星主之子。通过这个办法高丽解决了贡马的问题，也降服了耽罗，将耽罗纳入统治之下。这种结果或许是朱元璋未能预料到的。

Abstract

As the Place of Exile Tamna in the Early Ming Dynasty 20 Years

Temur Temule*

Twenty years since the Yuan Dynasty and the Ming Dynasty were replaced, the existing order of orders in East Asia and Northeast Asia was broken and new orders were created. The relations North Yuan–Ming–Goryeo have led to a lot of ups and downs. During the late 13th century and the early 14th century, Tamna(Jeju Island) embraces many foreign immigrants. They were either the Monarch of the Yuan Dynasty, or the political bureaucrat or the arrested bandits. The new Mongolian exile came to Tamna in 1382, 1389, and 1392. They were exiles from Yunnan Province by Emperor Ming. It explain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ng and Goryeo has already become clear and that the Ming dynasty secured a hegemonic position in the Southeast Asian continent. The Ming Dynasty ruled China instead of the Yuan Dynasty, but still banished the Mongol emperor and its associates to Tamna. It proves the continuity of the Yuan Dynasty and the Ming Dynasty in another respect.

* Nanjing University, China

濟州島研究 48집

**Keywords: Yuan, Ming, Goryeo, Tamna, Yunnan Mongols,
Exiles**

교신: 特木勒 中国 南京市 汉口路 22号 南京大学 历史系 210093

(E-Mail: temur@nju.edu.cn)